

사설

고성군청 공무원의 30% 이상이 속초에서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충격을 던져준다. 거주 이전의 자유가 있는 민주국가에서 어디에 사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반문할 수도 있다. 또 속초에서 살다보면 보고 듣는 게 더 많아서 업무추진을 하는데 오히려 도움이 된다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잠시만 생각하면 공무원들의 이런 행태가 얼마나 지역발전에 저해되는지 금방알 수 있다. 공무원들은 명색이 지역주민들을 선도하는 그룹이다. 농촌지역일수록 공무원들의 말과 행동은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공무원들이 속초지역에 거주하면서 출근만 하는 모습은 지역주민들에게 부러움의 대상이 돼, 이를 따라하려는 도미노 현상을 유발시킬 수도 있다.

보다 심각한 것은 이들이 속초에서 경제생활을 하는만큼 상대적으로 고성지역

에는 경기침체를 가져온다는 것이다. 149명의 공무원 본인을 포함해 가족들까지 줄잡아 500여명이 속초에서 먹고 마시는데, 이들이 고성에서 그렇게 한다면 경기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을은 자명한 이치다.

다른 잣대로 살펴봐도 문제는 크다.

고성군을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는 이달 말까지 주민등록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고성군도 이 시기를 이용해 군부대와 경동대, 기업체 등을 방문해 실거주자인 고성군으로 주소를 이전해 달라고 독려하고 있다. 또 전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자진신고하면 과태료의 3/4

을 경감해주고 있다.

그런데 이런 업무를 보는 공무원들 가운데 141명이 정작 자신들은 속초에서 살면서 주민등록은 고성으로 두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다. 속초시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들 141명의 공무원들을 방문해 속초로 주소이전을 해달라고 요

정당하지 않는 방법으로 일시적인 이익을 볼 수는 있겠지만, 결국엔 일을 그르치게 된다. 차라리 지금이라도 속초시에 자진신고를 하고 주민등록을 옮기는 것이 맞다.

우리는 이 시점에서 과연 속초가 그렇게 살기 좋은가 질문하고 싶다. 속초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 속초사람들은 속초에 살기 싫어서 떠나는 데, 고성사람들이 속초가 좋다고 몰려가는 것은 일종의 넌센스다.

사실 거주이전의 문제는 자치단체도 강제할 수가 없는 사안이다. 공무원들이 가장 신경을 쓰는 '인사고과'에도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지역을 선도한다는 공무원들이라면 한번쯤 양심에 손을 얹고 생각해볼 문제다.

요즘 개그프로에서 유행하는 표현을 빌려, '다들 속초로 이사 가면, 소는 누가 키워' 라고 묻고 싶다.

속초가 그렇게 살기 좋은가

청해야 하고, 만일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게 타당하다. 그것이 상식이며 그것이 국민적 정서에 맞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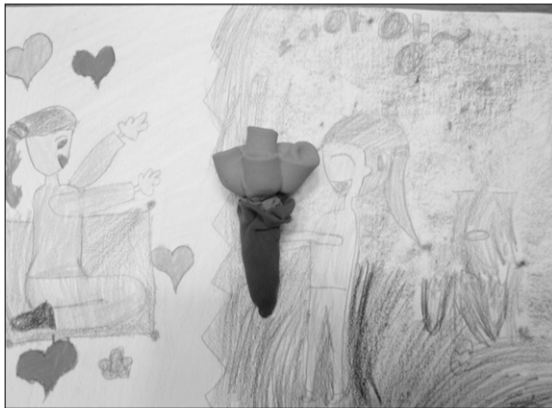
이들 141명의 공무원들 가운데 일부는 "고성군을 위해 주소를 고성에 두고 있다"며 마치 선심이라도 쓰듯이 반응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어떠한 일이든

미술치료에 대한 이해 <5>

학교가 싫고 사는데 재미없어요!

최금란 칼럼

교육학박사, 강원미술심리치료센터 소장



동조절부전(affect dysregulation)이라 진단하였다. 정동이란 감정이며, 조절부전이란 조절되지 않거나 전혀 조절되지 않고 변하기 쉽다는 것이다.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예민한 상태여서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충격을 받은 아이들은 예민한 상태여서 사소한 스트레스에도 강한 반응을 보이고, 순간적으로 감정조절 불능 상태가 된다. 화, 공포, 슬픔, 수치심, 무력감 등의 감정들이 갑자기 나타나는 즉각적인 반응인데, 매우 강하고 불쾌할뿐더러 견딜 수 없을 정도일 때도 있다. 이런 반응에 대한 공포 또한 다양한 회피 행동을 만들어 낸다.

작은 스트레스에 매우 강렬한 반응을 보이는 아이들은 충동적인 행동을 할 위험성이 높다(van der Kolk et al., 1996). 충동적인 행동은 견디기 어려운 감정의 즉각적인 해결책은 되지만 다른 문제들을 야

기한다. 적대적 반항장애와 행실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문제 행동은 처리되지 않은 외상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크다(Ford, 2002; Greenwald, 2002b).

이 아동은 이혼으로 인한 시간 경과에 따른 외상후 스트레스 증상이다. 이 증상은 지속되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완 상태로 바뀌지 않는다. 안전성과 이완으로 전환되지 않고, 생존 모드의 필요성만 계속 강화되어 소화시킬 기회가 없다.

상처 입은 아이들은 과다경계 증상 때문에 중립적인 신호를 잘못 해석해서 위험한 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것처럼 느낀다. 아이들이 생존모드에만 집착하는 한 안전감을 느낄 수 없고, 이완될 수 없으며, 고통스러운 기억을 소화시킬 수 없다.

이 아동도 부모의 이혼이 새로운 사건을 건강한 방식으로 처리하지 못한 것이다. 새로운 사건(또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것)을 처리하기에는 이미 힘든 상태이기 때문이다. 만약 새로운 사건이 장벽 뒤의 급소를 자극한다면 예상보다 훨씬 강한 반응이 나타난다. 이런 과잉반응은 새로운 경험을 처리하기 어렵게 해서, 결국 경험을 소화시키지 못하고 그 기억도 장벽 뒤로 밀어 넣게 된다. 그래서 외상 경험이 있는 이 아동은 새로운 충격적인 경험을 하

면 압도당하거나 추가적인 외상을 받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다.

장벽 뒤에 축적된 외상 경험(관련된 생각과 감정)이 많을수록 '외상 부담(trauma burden)' (Greenwald, 19997)이 아이들의 일상생활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일회성 사건은 아주 유사한 연상 자극을 만날 때까지는 보통 잘 차단된다. 그러나 처리되지 않은 외상이 장벽 뒤에 축적되어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였다. 첫째, 현재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 강도가 더 강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은 아이가 과잉반응을 한다고 생각한다. 둘째, 회피가 일반화되어 점점 더 광범위한 회피반응을 한다. 모든 인간은 패턴을 분석해서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회피하려는 방어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외상을 입은 아이의 회피는 매우 강력하고, 극단적이다. 결국 회피 반응이 특정한 위험 상황에서 일반화되어 위험하지 않은 다른 생각들까지 회피하게 되는 것이다.

이 아동은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모와의 건강한 애착관계형성과 부모의 이혼에 대한 상처를 회복하는데 치료 목표로 하여 가족치료와 개인치료를 병행하였으며, 교사의 협조와 증재로 인해 자존감도 향상되었고, 또래관계도 향상이 되었다.

◇편집국에서

0...이번호부터 '고성군의 미래, 명태에게 길을 묻다'란 제목으로 3회 기획 연재물을 게재한다.

이번호에는 1부 '명태산업 전성기의 추억과 반성'이란 제목으로 기사가 나간다. 앞으로 2부, 3부 연재를 통해 고성군의 미래발전을 위

해 필요한 명태산업의 부활을 조망하게 된다.

이번호 기사를 위해 그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왔던 귀중한 사진자료를 선뜻 제공해준 기획감사실 남동환씨에게 감사드립니다. 빛바랜 과거의 사진들이 있었기에, 독자들에게 보다 실감나는 내용을 전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강원 고성신문 • 등록번호 : 강원 다 01183 • 등록일 : 2011년 1월20일 • 간별 : 주간

•우 219-803 •주소 : 강원도 고성군 간성읍 신안6리3반 247-3
•편집국 681-1666 •구독·광고 681-1667 •팩스 681-1668

발행·편집인 윤승근 인쇄인 현재오 편집국장 최광호

•2011년 1월 31일 창간 •구독료 : 한달 4천원, 1년 4만원
•구독료 납부 : 농협 301-0072-9350-81 / 예금주 : 주식회사 고성신문

※ 본지는 주간신문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